

LG전선(주)

**海外事業團 발족
수출 대폭 강화**

LG전선(대표: 權攸久)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출목표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걸기로 했다.

이를 위해 LG전선은 이번 '98년 정기 조직개편에서 경영위기를 타파하고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사업단을 발족시켰다.

해외사업단은 기존 사업부 조직과는 별도로 권문구사장을 단장으로, 각 사업부문과 지원부문의 임원이 해외사업단 위원이 되고 해외사업 담당 임원은 간사가 되어 중·장기 해외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원부문과 기존 조직의 인력을 해외부문으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인원과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LG전선의 이 같은 결정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조정 등을 조건으로 IMF의 지원 자금을 받기로 함에 따라 신규 투자가 유보되고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등 주요 산업의 내수 시장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매출을 만회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데다 때마침 환율도 수출 증대에 이롭게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또 전선산업의 특성상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세계 어느 나라나 지역에 기반을 둔 자국 중심의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예산 감축과 건설 경기의 위축 등 내수 시장의 기반이 약해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LG전선 해외사업단은 해외사업 전략 수립 외에도 필요한 해외정보를 수집해 분석, 제공하고 외환운영, 해외구매 등 해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사안별로 심의,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G전선은 설비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 구매에 따른 지불조건도 달러화가 아닌 다른 화폐로의 지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외화 절감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중전기기 수출전문인력 양성

한국전기공업진흥회(회장: 이희중)가 관련협단체로는 최초로 체계적인 중전기기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전기기 수출활성화와 해외시장 공략으로 거센 IMF풍랑 타개에 나섰다.

전기공업진흥회는 매년 20% 가량 증가세를 보이던 중전기기 수출이 지난해 처음 5%가량 감소하면서 빨간 불이

켜졌다고 판단, 올해부터 중전기기 수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중전기기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성을 면치 못해 수출 전문인력 확보와 해외정보 부족, 수출 관련 행정지식이 대부족해 해외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공업진흥회는 매년 2회에 걸쳐 「중전기기 수출전문 인력 연수생」을 배출함으로써 내수위주의 국내 중전기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체들에게 우수한 수출전문인력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행정 습득기회 제공과 수출시장 정보수집 요령 및 해외시장개척 마인드 제고로 중전기기 수출축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선 오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수원에서 제1기 중전기기 수출전문인력 연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수출경험이 부족한 국내 중전기기업체를 위해 수출관련 전문가들이 중전기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전전략 무역실무개요 및 무역용어해설 ▲국제무역계약실무 ▲신용장(LG개설) 요령 ▲수출입 승인절차 수출입 통관 및 과세 ▲금융외환 실무 국제 계약서의 기본구조 및 내용검토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우리나라 중전기기업계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에 실시

할 제1기 중전기기 수출전문인력·연수 생을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대한전선(주)

정보통신부문

ISO 9001 인증

대한전선(대표 兪彩濬)은 최근 영국 SGS 야슬리로부터 시흥 정보기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교환 및 전송장비 등 정보통신 소재품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 회사는 지난 '93년 시흥 정보기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계전제품에 대한 ISO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추가로 이번에는 시흥 정보통신제품도 국제 품질 및 환경시스템 인증기관인 SGS 야슬리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12월 24일 밝혔다.

대한전선의 정보통신부문 ISO 인증 추가 획득은 공장조직 외에 개발관련 조직에서 이미 개발완료된 장비와 현재 개발진행중인 장비 모두를 심사범위에 포함시켜 품질시스템을 수립하고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회사측은 이를 계기로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내년 하반기까지 급격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안양, 시흥 및 안산 3개 공장에

대해 획득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 '93년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전선 및 케이블 소재품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소재사업부문에 걸쳐 ISO 품질 시스템 인증을 이미 획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주)

“전동차용 IGBT” 보조 전원장치 개발

현대중공업이 최근 세계에서 처음으로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素子를 적용한 전동차의 보조전원장치(SIV: Static Inverter)를 개발하는데 성공,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는 전동차에 공급되는 1,500V 직류전원을 교류상용 전원으로 가변하여 전동차량 내의 냉난방, 전등, 출입문 개폐 등의 각종 전원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주요 기기이다.

이번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가 3,200×1,000×730(mm)에 무게 1.8t으로 크기와 무게를 기존 트랜지스터 방식의 60%로 축소하였고 소음은 65dB 이하, 효율은 94%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나 가격은 기존의 70%에 불과하다.

이 시스템은 또한 제이기 구성에 32bit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제어성능을 향상시켰고 유지보수 기능 및 자기 진단 기능을 대폭 향상하였다.

이 「IGBT형 보조전원장치」는 일반 전동차용에 앞서 한국기계연구원과 현대가 공동으로 실용화 연구를 하고 있는 도시형 자기 부상열차에 적용, 지난해 11월말 성공적인 시승식을 가졌고 '98년 하반기 완공될 2차 자기부상열차에도 적용될 계획으로 있는 등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現代重工業은 이 보조전원장치의 개발에 2년여 동안 약 1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였고 연구과정에서 개발해낸 「대용량 IGBT 구동회로 개발」件을 포함 모두 5件에 대해 국내 특허를 출원중에 있고 유럽, 미국, 일본 등에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IGBT 素子는 전압 구동형 素子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며 시스템을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처음 적용할 당시에는 전압정격(최대 1,200V)이 낮은 관계로 대용량(1,500V 이상)에는 적용하지 못했으나 現代重工業이 이번에 1,600V/600A급의 대용량 IGBT를 사용하여 보조전원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대용량 인버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現代重工業은 이번 IGBT형의 개발 성공으로 이 분야의 경쟁업체인 유럽, 일본업체보다 더 높은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신설 예정인 서울,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지하철의 보조 전원장치 수주 뿐 아니라 향후 수출 시장 개척에도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천전기(주)

신임 金時均 社長 취임

利 川電機(株)는 지난해 12월 29 일자로 신임 金時均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번의 조치는 3월에 三星電子에서 이천전기(주)의 지분을 완전 인수한 이후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에 한층 더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국면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임 김시균 사장은 1970년 三星그룹에 입사하여 삼성전자(주) 관리담당과 삼성전기(주) 및 제일모직(주)의 기획관리본부장을 거쳐 '95년부터는 상성할부금융(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전임 유희동(柳熙東) 사장은 고문으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천전기(주)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게 된다.

LG산전(주)

부산 용두산공원에 야외 에스컬레이터 설치

6.25 전쟁 시절 부산 피난민들의 애환이 깃든 용두산공원 194 계단이 현대식 에스컬레이터로 새롭게

변모한다.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는 부산시가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노인층과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 교체한 것으로, 지난 12월 초에 운행하기 시작한 폭 0.8m, 총 길이 44m의 에스컬레이터 2대에 이어 금년 3월까지 나머지 2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는 LG산전(대표: 李鍾秀)이 맡았는데 "야외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란 점을 감안해서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한 원통형 덮개(캐노피)도 함께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덮개 재질은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유리로 제작했으며, 습기 예방을 위해 내부에 히터기를 달아 놓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두산공원은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양옆에 기존 계단과 같은 수인 194개의 계단을 따로 만들어 용두산공원 계단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애정과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

한편, LG産電의 가정용 충전식 드릴(Sun-Tack L510K)이 독일 인더스트리 포럼(Industrie Forum)이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 디자인(Award for Excellent Design)으로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에 iF 인증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외적으로 제품 및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은 물론 유럽 등 해외 진출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iF Design Award는 1953년 이후 전세계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매년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1998년 공모전에는 25개국으로부터 총 1,494건이 출품되었는데 이중 394개의 제품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어 iF Product Design의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들 제품은 독일 하노버 박람회(Hannover Fair)에서 오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시되며, 3월 19일에는 이들 제품 중에서 「Top 10」과 「Best of Category(부문별 최우수 디자인)」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심미성, 생산성과 재질, 혁신성, 기능성, 기능 표현으로서의 형태, 인체공학, 안전성, 환경 친화성, 견고성 등의 다각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성을 인정받은 LG산전의 가정용 충전식 드릴은 이번 디자인 심사에서 특히 정밀하고, 인체공학적이며, 튼튼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LG산전은 국내 산전 업계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디자인 분야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5년 국내 산전 업계에서는 최초로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전동공구 PI(Product Identity)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제품 디자인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왔다.

또한 지난 해에는 같은 제품(가정용 충전식 드릴)이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KIDP) 주관의 우수디자인(Good Design)에 선정되었으며, 38mm 해머 드릴로 미국 디자인 협회가 주최하는 '97 IDEA에서 디자인 연구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